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ynamis

2026.04.25 - 05.16

*Julia Moon, Seonjae Kim, Serin Oh
Soyun Jo, Yeon Yeoin*

DYNAMIS 디나미스

연여인, 오세린, 줄리아 문, 조소윤, 김선재

2026.04.25 - 05.16

디아컨템포러리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남동 새로운 공간에서의 재개관을 기념하는 그룹전 《DYNAMIS (디나미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디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해 나갈 큐레토리얼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선언적 프로젝트다.

디나미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디나미스(DYNAMIS, δύναμις)’—가능성, 잠재성, 되어감의 힘—에서 출발한다. 존재를 완결된 상태가 아닌 ‘형성 중인 상태’로 이해하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에 주목한다. 전시는 결과가 아닌 과정—감각, 실험, 긴장, 그리고 질문이 축적되는 상태—을 중심으로, 현재 ‘되어가는 중’에 있는 다섯 명의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조명한다.

디아는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이후, 동시대 한국 작가들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2024년 서울 삼청동으로 거점을 옮기며 사명을 재정립한 디아는, 이번 한남동 확장 이전을 계기로 보다 선명한 기획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국 미술 생태계 안에서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재개관 전시 《DYNAMIS (디나미스)》는 디아가 앞으로 지향하는 핵심 가치—젊은 작가 발굴과 성장의 플랫폼—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전도유망한 청년 중년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면, 서울에서는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그들의 조형 언어가 확장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집중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매체와 조형 언어를 통해 세계를 감각하고 해석하며, 기억과 감정, 시간과 관계의 층위를 교차시키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들의 작업은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형성 중인 감각과 의미의 장—을 드러낸다. 《DYNAMIS (디나미스)》는 단순한 신진 작가 그룹전이 아니다.

이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예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으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EXHIBITION PREFACE

“Potentiality is the capacity to be otherwise.”

잠재성이란, 지금과는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 Aristotle

‘DYNAMIS(디나미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존재를 이미 완결된 상태가 아닌 ‘되어가는 상태’—곧 가능성과 잠재성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사유에서 출발한다. 이는 무엇이 되었는가보다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시선이며, 결과가 아닌 생성의 과정을 존재의 본질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번 전시는 이 개념을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실천 속에서 다시 사유하고자 한다.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감각과 실험, 긴장과 질문이 축적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늘날 예술이 빠른 성취와 명확한 결과를 요구받는 환경 속에서, 이 전시는 오히려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 유동하는 형식, 생성 중인 의미를 긍정하며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다시 호출한다.

이는 디아컨템포러리가 동시대 젊은 작가들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미 완결된 언어보다, 형성 중인 감각과 조형 언어—곧 ‘되어가는 상태’에 놓인 작업들에 주목하는 것. 본 전시는 그러한 시선 위에서,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은 순간—작가의 언어가 생성되고 확장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감각하고 번역한다. 이들의 작업은 재현을 넘어 기억과 감정, 시간과 관계의 층위를 교차시키며 복합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익숙한 이미지의 전복, 서사의 파편화, 물질과 감각의 충돌은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동시대의 정서와 공명하는 조형 언어로 확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생성되는가이다.

오세린(B.1987)은 원본과 복제, 실제와 가상, 가치와 폐기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며,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낸다. 버려진 액세서리와 가짜 보석을 수집한 뒤, 밀랍과 석고 몰드를 제작하고 금속 주조와 도자 소성 과정을 통해 형태를 재구성한다. 복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사물

에 잠재된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금속과 도자는 열과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물질로, 작가는 그 변형의 과정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이동하는 상태를 조형적으로 드러낸다.

조소윤(B.1997)의 회화는 일상의 파편적 순간들을 수집하고, 이를 장지 위에 중첩하며 하나의 화면으로 재구성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몽타주처럼 병치되며, 단일한 서사가 아닌 다층적인 감각의 흐름을 형성한다. 그의 작업은 사소한 순간들의 축적을 통해, 완결된 이미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감각의 상태’를 드러낸다.

줄리아 문(B.2002)의 작업은 이동과 경계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유화를 기반으로 한 그의 회화는 유동적으로 중첩되는 색과 형태의 레이어를 통해 신체의 감각을 구축한다. 화면 속 신체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왜곡과 중첩,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경계는 유동적으로 흔들린다. 이는 ‘형성 중인 존재’에 대한 회화적 탐구이다.

연여인(B.1995)의 회화는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내면 세계를 구축한다. 잉크 드로잉과 디지털 작업을 통해 형성해온 시각 언어는 최근 유화로 확장되며, 감정의 층위를 물질적으로 환원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감정의 구조를 수행하는 조형적 장치로 기능하며, 서로 중첩되고 변주되며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의 회화는 기억과 감정의 파편을 축적하며, 규정되지 않는 상태—감정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김선재(B.1997)는 ‘Over World’라는 가상의 중간계를 구축하며,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감각적 환경을 제시한다. 합판, 레진, 에폭시 퍼티 등 인공적 재료를 기반으로 조형을 구성하고, 에어브러시를 통해 표면을 처리함으로써 디지털 이미지와 유사한 시각적 질감을 구현한다. 그의 작업은 가상의 세계를 물질로 번역하는 과정이며, 하나의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재구성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 전시는 작가 개인의 성장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예술을 하나의 ‘열린 상태’로 이해하며, 작가-작품-관람자 사이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여기서 작품은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며, 관람 또한 해석의 종착점이 아닌 또 다른 생성의 계기가 된다.

ARTIST BIOGRAPHY

연여인 Yeon Yeoin (b.1995)

연여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과정을 졸업했다.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5), DOOR(서울, 2023), 서울시립미술관 벙커(서울, 2019)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6), 구하우스(서울, 2025), 서울한옥위크 전시(서울, 2024), 젠틀몬스터 HAUS NOWHERE Shenzhen (선전, 2024), POP 한남(서울, 2023), 사무람(서울, 2023), 서울미술관(서울, 2022; 2021), 기지재단(서울, 2022), 메종 오브제(파리, 2022), 행화탕(서울, 2019), 대림 구슬모아당구장(서울, 2019) 등에서 열린 단체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9년 Internationales Digitalkunst Festival(슈투트가르트, 독일) 오디오비주얼 부문과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서울, 한국) 한국 애니메이션 단편 부문에 작품이 상영되었다. 구하우스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연여인 Yeon Yeoin
Bloom 2
2026
Oil on linen
116.8 x 91 cm





연여인 Yeon Yeoin

Bloom 1

2026

Oil on linen

89.4 x 145.5 cm



연여인 Yeon Yeoin
A Cake
2026
Oil on linen
72.7 x 60.3 cm
Framed 75 x 63 cm





연여인 Yeon Yeoin

I Close My Eyes 3

2026

Oil on linen

22 x 27.3 cm

Framed 23.5 x 30 cm



연여인 Yeon Yeoin

(L) *I Close My Eyes 2*

(R) *I Close My Eyes 1*

2026

Oil on linen

33.4 x 19 cm; 27.3 x 22 cm

Framed 36 x 21 cm; 30 x 24 cm

A woman with long dark hair tied back, wearing a dark blue long-sleeved shirt, is kneeling on the floor in a studio. She is focused on painting a large-scale artwork on a wall. The artwork features abstract, organic shapes in shades of brown and red. To her right, there is a black metal rolling cart with three shelves. The top shelf holds several paint cans and brushes. The middle shelf has some crumpled paper or fabric. The bottom shelf is empty. The background wall is covered in the same abstract artwork. The overall lighting is soft and focused on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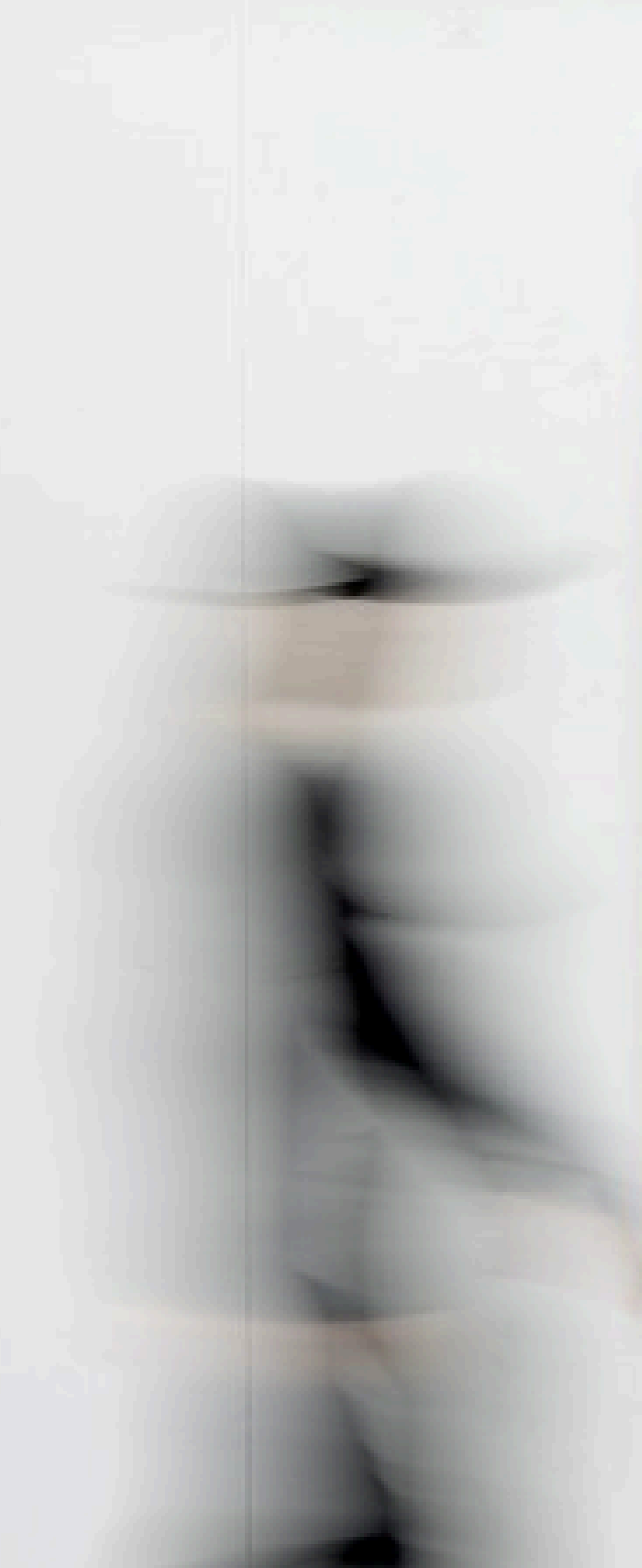
ARTIST BIOGRAPHY

줄리아 문 Julia Moon (b.200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올해 졸업 예정이다. 주요 전시로는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6), Kersgallery(암스테르담, 2026), KOPPLE Collective(런던, 2025), CICA 미술관(김포, 2024), Modern Art Oxford(옥스퍼드, 2023), 경인미술관(서울, 2020)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줄리아 문 Julia Moon
Circulate(ing)
2026
Oil on canvas
130 x 170 cm



줄리아 문 Julia Moon
Naked Scream II
2026
Oil on canvas
150 x 120 cm



ARTIST BIOGRAPHY



김선재 Seonjae Kim (b.1997)

김선재는 대구대학교 현대미술과 이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2026),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6), 공간해안 (인천, 2026), O21갤러리 (대구, 2025), 대구 신세계 갤러리 (대구, 2025), WWWSPACE2 (서울, 2025), 수성아트피아 (대구, 2025), 뎀센드2 (서울, 2025), 동작문화재단 동작아트갤러리 (서울, 2023), 옥션제로베이스 (서울, 2021)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선재 Seonjae Kim
미지의 숲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한
기원의 여신상
2026
Acrylic on canvas, panel
193.9 x 112.1 cm
235 x 154 cm (including frame)



DISCOVER THE SPIRITUALITY OF ARIA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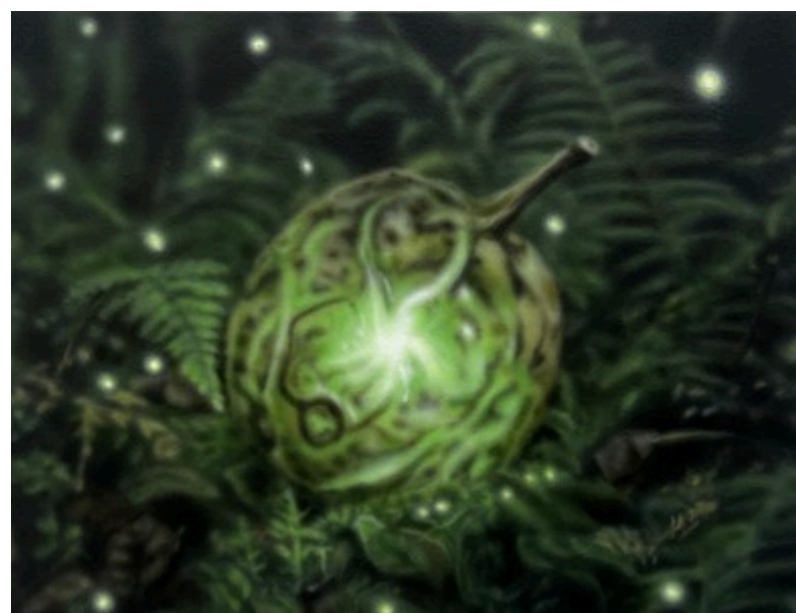


김선재 Seonjae Kim
빛이 들어오는 곳
2026
Acrylic on canvas, Epoxy putty
72.7 x 53 cm
85 x 71 cm (including frame)





김선재 Seonjae Kim
나무사이를 도약하는 스쿼빗
2026
Acrylic on canvas
53 x 45 cm



김선재 Seonjae Kim
빛나는 열매
2026
Acrylic on canvas
27.3 x 34.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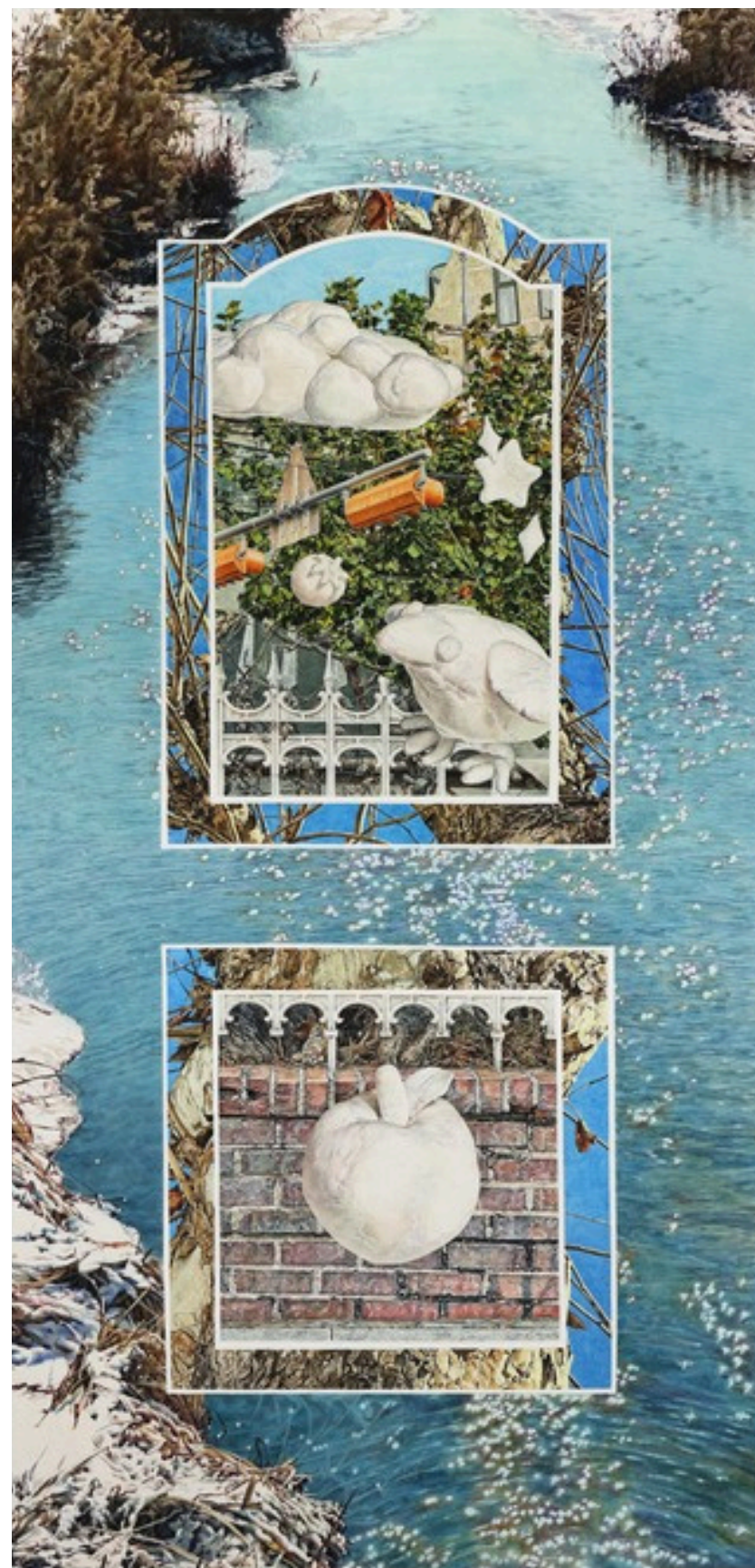
ARTIST BIOGRAPHY

조소윤 Soyun Jo (b.1997)

조소윤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올해 이화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6), 부산 복합예술공간(부산, 한국, 2025), 한길 북하우스(파주, 한국, 2025), 이화아트갤러리(서울, 한국, 2025), Kate Oh Gallery(뉴욕, 미국, 2025), SUN Gallery(2025), 온수공간(서울, 한국, 2024), 굽네 플레이타운(2024), 인천 17사단 갤러리(인천, 한국, 2024), 갤러리 라메르(서울, 한국, 2024), 두실 갤러리(2024)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조소윤 Soyun Jo
내 비밀은 말하기 어려워
2025
Coloring, airbrush on Korean paper
174 x 130 cm



조소윤 Soyun Jo

(L) 손잡이는 별도 구매

2026

Coloring, airbrush on Korea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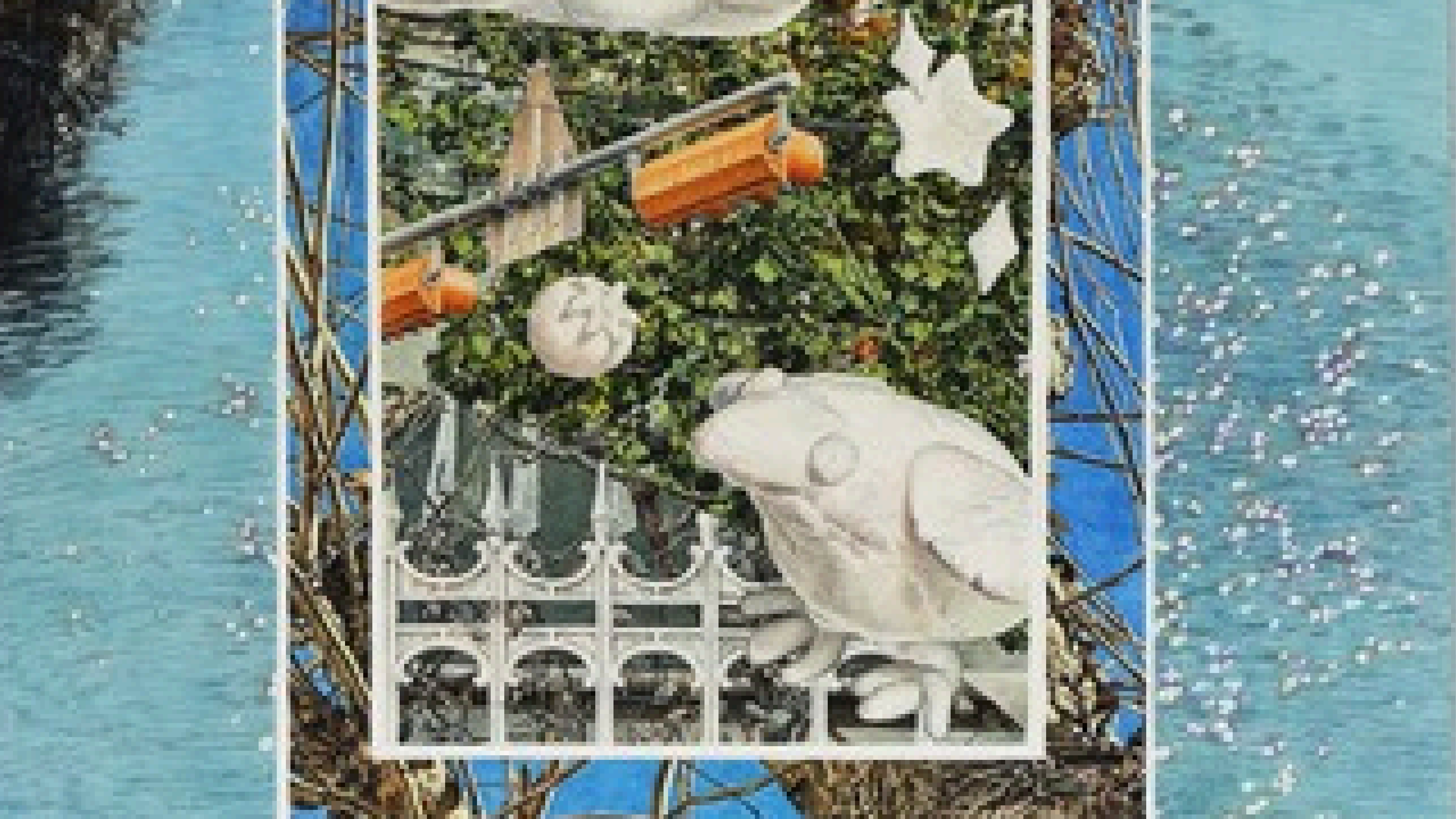
180 x 87.5 cm

(R) 우리 쪽으로 당기세요

2026

Coloring, airbrush, color pencil on Korean paper

180 x 87.5 cm





ARTIST BIOGRAPHY

오세린 Serin Oh (b.1987)

오세린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와 금속공예 학사를, 동 대학원에서 금속공예 석사를 마쳤다. 작가는 파운드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세움아트스페이스(서울, 한국, 2018), 경남도립미술관(창원, 한국, 2017), 가창창작스튜디오; Hangzhou Zhe Mu Hui Art Space,(대구, 한국; 항저우, 중국, 2016), 갤러리에담 컨템포러리(서울, 한국, 2012)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6), THE third (서울, 한국, 2026), 공간파도(서울, 한국, 2025),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2024), 한솔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4), 서울공예박물관(서울, 한국, 2024)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푸른문화재단 등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오세린 Serin Oh
불에서 나온 것들
2026
Glazed ceramic, brass
54 × 33 x 20 cm



오세린 Serin Oh
불에서 나온 것들
2026
Glazed ceramic, brass
49 x 37 x 20 cm





오세린 Serin Oh
불에서 나온 것들
2026
Glazed ceramic, brass
39 x 57 x 16.5 cm



오세린 Serin Oh

가장자리의 형태

2026

Glazed ceramic, silver, faux pearls, acrylic paint

50 x 48 x 15 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ynamis

2026.04.25 - 05.16

*Julia Moon, Seonjae Kim, Serin Oh
Soyun Jo, Yeon Yeoin*

DIA Contemporary Seoul
DIA Project Seoul
Huue Pte Ltd Singapore

www.diacontemporary.com
www.diaartproject.com
[@dia.contemporary](https://www.instagram.com/dia.contemporary)
[@dia.art.project](https://www.instagram.com/dia.art.project)